

군사시설보호구역 대폭 解除



그동안 포천시의 최대 현안문제로 지적되어온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되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해제 조치로 지역발전을 위한 추석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천시 지역을 비롯한 연천군, 양주시 등 전국 139개 지역 7천146만여평이 오는 3월1일자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전면 해제 또는 완화된다.

지난 13일 국방부는 군사작전 환경변화와 국민재산권 보장을 위해 108개 지역 6천522만19천여평을 전면해제하고 623만1천여평을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기능을 상실

포천지역 22개 洞里 777만2천평 전면해제 군사작전 환경변화 국민재산권 보장차원

했거나 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곳과 도시주변 또는 취약도시 지역이다. 또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완화되는 지역은 동두천과 강화 등 31개 지역이다.

이번 조치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포천시 지역은 ▶선

단동 자작동(왕방산 정상부근) 23만2천평 ▶소흘읍 무림리·이곡리·직동리 30만평 ▶군내면 직두리·명산리 50만평 ▶군내면 직두리·마전리·명산리 50만평 ▶내촌면 진목리 20만평 ▶내촌면 읍원리·마명리 40만평 ▶내촌면 신팔

리·소하리 132만평 ▶신북면 금동리 52만평 ▶창수면 추동리 36만평 ▶영중면 성동리(파주골) 20만평 ▶영북면 운천리(다대동 일대) 20만평 ▶영북면 산정리(산정호수매포소 일대) 2만평 ▶영북면 아미리 42만평 ▶영북면 대화산리(절골,

상하동) 25만평 ▶관인면 증리(증자산 일대) 80만평 ▶관인면 사정리(수리봉 일원) 90만평 ▶관인면 냉정리 65만평 등 22개 지역 777만2천평이다.

연천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현황은 ▶연천읍 도신리 9만평 ▶현기리 42만평 ▶상리·신방리 30만평 ▶전곡읍 은대리 176만평 ▶전곡리 68만평 ▶군남면 황지리·남계리 64만평 ▶초성리 일대 25만3천평 ▶연천읍 부곡리 80만평 등이다.

또 양주시는 ▶광적면 천대동 1만7천500평 ▶비암리 1만3천806평 ▶모래말 일대 4만평 ▶백석읍 연곡리 4만4천160평 ▶은현면 귀평동 35만3천평 ▶구수동 26만5천평 ▶향동21만평 등이며 의정부시는 ▶자일동 금요동 일대 107만평, 동두천시는 ▶탑봉동 광담동 안밭 일대 등이다.

또한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완화되는 지역은 ▶의정부시 녹양동일대 6만평을 비롯해 양주시 ▶남면 신산리 가남리 97만평 ▶장흥면 일영리 9만3천530평 ▶장흥면 삼삼리 1만7천920평 ▶장흥면 부곡리 일대 52만5천490평이며 동두천시 ▶봉암리 일대 42만평이다.

이에 비해 자작동 일대 88만8천여평이 추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軍이 행정관서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친 3월부터 시·군·구에서 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행정 관서장이 건축물의 신·증축 등을 허가하거나 처분할 때 관할부대와 사전협의의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통제 지역에서 제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관할부대 등과의 협의 하에 신·증축이 가능하다.

〈관련기사 3면〉
하승환 기자 form66@paran.com

포천시 人事 앞두고 물밑작업 치열

승진 대상자 온갖 인맥동원 인사권자 설득 작업
서기관 2명 사무관 4명 주사20명 등 80여명 승진 대상

지난해 12월29일 행정자치부가 1국3과 12담당을 신설하는 포천시 행정기구 개편안을 승인함으로써 포천시 공무원 인사가 최근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게다가 정원식 산업도시국장 이 올 1월2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감으로써 4급 서기관 2명을 포함해 5급 사무관 4명, 6급 주사 16명 등 80여명이 승진요인이 발생해 2003년 시 승격 당시보다 오히려 승진하는 공무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4급 서기관 승진 두 자리를 놓고 승진명부에 올라 있는 A과장과 L과장 등 4-5명이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5급 사무관 승진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6급 공무원들이 온갖 인맥을 동원, 인사권자 설득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농업기술센터 박정화 소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가 공석이 된 소장직은 농업지도관 2명중에서 임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포천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이번 인사는 2월중에 실시될 것

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사회의 최대 관심사로 거론되고 있다.

인사권자인 박운국 포천시장은 4급 서기관 승진에 대해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순리를 거스리지 않는 선에서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힌바 있어 임용시기 및 과장 승진, 연령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5급 사무관 승진의 경우 우선 여성 대상자를 선정하고 행정직 2명, 기술직 1명이 승진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행정기구 개편은 2003년 10월 19일 시 승격 당시 승인되지 않았던 1과와 유보됐던 1국 2과에 대한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행된다. 이와 함께 행정부가 승인한 정원 48명과 일동도서관 건립에 따른 6명,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 보강지침에 따른 2명, 과거사정리 업무추진관련 지자체 한시인력 보강지침에 따른 한시정원 1명 등 모두 57명을 증원하게 됨으로써 3국 2담당관 1과 163담당 2직속 2사업소 1읍 11면 2동의 체제를 갖추게 된다.

하승환 기자 form66@paran.com

포천·연천 경지면적 121ha 減少

2005년도 耕地面積 조사결과 발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포천·연천출장소는 2005년도말 현재 포천·연천 경지면적을 전년보다 0.58% 감소한 20,787ha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20,908ha보다 121ha가 줄어든 것이며, 전국 경지면적 1,824,039ha의 1.14%, 경기도 경지면적 198,569ha의 10.47%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포천·연천출장소 담당공무원이 직접 2005년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에 걸쳐 포천·연천지역 414개의 표본조사단위 구와 2ha이상 집단적으로 경지증감이 있는 지역에 대해 통계 조사공무원이 경지면적을 현지 실측·확인 조사한 결과다.

발면적은 ▶포천(2004년 5,701ha → 2005년 5,710ha) ▶연천(2004년 4,495ha → 2005년 4,680ha) ▶ 10,196ha로 지난해 10,390ha보다 194ha(1.9%)가 늘었다.

2005년 한 해 동안의 경지면적

적 증감내역을 보면 총 증가면적은 438ha이고 총 감소면적은 559ha이며 순 감소면적은 121ha이다.

경지면적이 증가된 사유는 경지정리 및 개간 65ha이고 논밭 전환으로 373ha이며 감소된 사유는 경지정리 42ha, 건물건축 59ha, 공공시설 49ha, 논밭전환 373ha, 기타로 36ha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포천·연천출장소 담당공무원이 직접 2005년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에 걸쳐 포천·연천지역 414개의 표본조사단위 구와 2ha이상 집단적으로 경지증감이 있는 지역에 대해 통계 조사공무원이 경지면적을 현지 실측·확인 조사한 결과다.

기타 문의는 홈페이지(www.naqs.go.kr)나 전화(031-535-2605, 534-6060)로 하면 된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抱川商議 2006년 신년 인사회 ... 德談 나뉘

포천상공회의소(회장 김인만)는 지난 12일 용정회관에서 2006년도 신년 인사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손학규 경기지사를 비롯한 박운국 포천시장, 홍성훈 시의회 의장 등 기관단체장 및 포천상공회의소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새해 덕담을 나누었다.

이날 행사는 제1부 행사로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포천상의회장의 대화, 경기지사 축사, 포천시장 축사, 시의회 의장 축사 순으로 이어졌다. 또 제2부 행사는

사무역 절단식 및 건배제, 오찬으로 진행됐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축사를 통해 "기업인들은 포천의 힘이며, 에너지"라고 전제하고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통기업 육성과 융합해 기업인 여러분께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손 지사는 또 "남북협력 시대를 맞아 포천은 획기적인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포천미래에 대한 좀더 확신을 가지고 기본 인프라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운국 포천시장은 "테크노파크 사업은 광역도시에서만 유지하는 관례를 깨고 대전테크노파크가 조성되어 경기북부지역 기업지원과 상공인들에게 될 것"이라며 "2006년에는 포트라 무역회사를 설립해 기업인 여러분께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시장은 "가구관련 업체가 포천에 가장 많다"면서 "손학규 경기지사가 가구연구센터 포천유치에 힘을 실어줬다"고 강조했다.

하승환 기자 form66@paran.com



지난 12일 개최된 포천상공회의 2006년 신년인사회에 손학규 경기지사를 비롯한 포천 기관단체장 150여명이 참석해 새해 덕담을 나누었다.

대자연의 선물에 정성을 듬뿍담은...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꽃샘

종합선물세트



꽃샘고려홍삼꿀세트
홍삼꿀 1000g



꽃샘토종고구1호
토종꿀 2400g
꽃샘토종고구3호
토종꿀 1200g



꽃샘특선봉밀1호
집화꿀 2200g
꽃샘특선봉밀2호
집화꿀 1700g



꽃샘 1호
아카시아꿀 1200g
잡화 꿀 1200g



꽃샘 5호
꿀대추차 1000g
꿀유자차 1000g
꿀솔잎차 1000g



꽃샘 6호
꿀대추차 1200g
꿀유자차 1200g

꽃샘 4호
영지꿀차
솔잎꿀차 × 600g
대추꿀차

꽃샘 기획세트 2호
영지 꿀 차 1200g
잡화 꿀 1200g